

영암군, 몽골·필리핀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몽골 바룬바얀울란군, 필리핀 제너럴루나시·노베레타시 우수 인력 선발·사전 적응 훈련 거쳐 내년 4월부터 배치

영암군이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몽골 바룬바얀울란군, 필리핀 제너럴루나시·노베레타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인력 부족 해결과 우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날 협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몽골 다슈체메그 바타르츨룬 바룬바얀울란군수, 필리핀 매트 E 플로리도 제너럴루나시장, 조셉 M 쿨로 노베레타시지자체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몽골과 필리핀 지자체는 우수 인력 선발, 사전 적응 훈련 등을 거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이 외국

인 계절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몽골, 필리핀의 계절근로자들이 영암으로 들어온다. 이들은 사전절차를 마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일손 부족 농가에 배치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가는 몽골과 필리핀의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아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몽골과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영암의 따뜻한 정 속에서 소득도 올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살펴서 활발한 교류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올해 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방식으로 29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해 노동력 수요에 대응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 사칭 문자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목포시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 사칭 문자 사기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일부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우려되어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자생 조직 등에 홍보를 요청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단속되었으나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 결제나 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문자 결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번호를 통해 발송된 과태료 조회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개최...역량 강화

영광군은 지난 11월 9일 한국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회장 황봉석)가 주관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온 한국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회장 황봉석), 한국생활개선영광군연합회(회장 원순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회장 이동주), 한국여성농업인영광군연합회(회장 최성화), 영광군4-H연합회(회장 강재원)·한국4-H영광군본부(회장 홍길수) 회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해 학습단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역량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김봉남, 트롯장구, 부채춤 등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발표하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회원들이 재배한 우수 농산물 전시, 강소농 브랜드 개발전시,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농업발전 유공자, 농업인 대상, 유공 공무원 시상도 했으며 특히, 당면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문' 낭독은 학습단체 회원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참여한 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만에 학습단체 회원들간 서로 격려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는 뜻을 전했다.

주관단체 황봉석 회장은 "이 자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영광군 농업인 학습단체가 영광군의 농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함평군, 오는 15일 김유라 작가 초청

'투자성공담과 재테크 꿀팁' 강연

함평군이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함평 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재테크 전문가 김유라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은 '재테크, 이제 선택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부동산 투자기법 등 투자 성공담과 재테크 생활 꿀팁에 대해 강연한다.

김유라 작가는 '생방송 오늘 아침, 아침마당, 동치미' 등 다수의 TV프로그램 출연과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6개월에 천만원 모으기'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테크 관련 저서를 쓴 재테크 전문 작가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습득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찬 함평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



고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 오는 12월에도 '인구와 미래, 일류 함평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래세대인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겨울철 폭설 대비 소재지 인도 제설 대책 등 논의



무안군은 지난 8일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현안 공유,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박장배) 20여 명이 참석하여 재난 발생시 자율방재단의 임무·역할과 내년 활동 계획, 홍보단장 선정, 신규단원 유치 및 활성화 방안,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장배 자율방재단장은 "이번 여름철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재난 예방 및 복구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무사했다"며 "올 겨울철에도 잘 대비해 재난 걱정 없는 무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수해현장, 축제장, 훈련장 등에 자발적으로 재난 대응 활동에 힘써주시는 자율방재단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무안 만들기 위해 앞장서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신안군,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성료

신안군은 지난 11월 6일~7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내 마음에도 색깔을 입혀요'로 전국 256개 시군구 중 48개 선정에 신안군도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증도면 치매안심마을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외부와 단절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친화적 프로그램을 지원, 심리·정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스피어십 걷기 프로그램 자유 프로그램 △자는 뮤지엄파크 및 신안명소 야유회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야외 활동으로 진행했다.

박우량 군수는 "관내 자원과 환경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인지능력·정서적 개선 효과 등 삶의 질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명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